



한인회보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Tel. (206) 546-6746 Beom Hoe Koo, Publisher Suk Bok Lee, Editor Printed By Pro-Litho

VOL 1 NO 2

FEBRUARY 1974

1974년도 예산 확정 균형예산 4천 4백불

회칙 제26조 1항에 의거 인원회에서 제출한 1974년도 한인회 총예산안이 지난 2월3일 서두수이사장실에서 열린 이사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날 확정된 총예산을 보면 수입면에서 전년도 이월금 460불, 1973년도 아리랑의밤 수익금 234불, 회비 1,000불, 광고료 950불, 1974년도 아리랑의밤 1,250불, 찬조금, 기부금 등 포함 4천4백불이며 지출면에서 회보발간 570불, 주소록 출판 500불, 한인회사부실입대료 600불, 사무실기구 및 비품도입 400불, 피크업(815 및 대번쿠버) 300불 총회 및 기념행사에 150불, 아리랑의밤 1,250불 기타운영비로 200불, 회관설치위원회에 기부금 100불, 등 포함 4천4백 불로서 총수입과 총지출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복지향상 연구위원회

한인회 건회칙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 문제를 전문적으로 분과위원회가 한인회 안에 설치되었다. 이는 회칙 제11조 1항(회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임명은 회장이 행한다)에 의하여 지난 2월5일에 발족을 본 복지향상연구위원회는 그 첫번째 과제로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에 Grant를 신청하기로 결정 권위원들이 부서를 담당하여 연구 및 조사에 나갔는데 일이 계획대로 잘되면 약 10만불의 무상원조를 받아서 소비조합을 창설하여 회원에게 쌀, 채소를 비롯한 식료품과 기타 생활필수품을 이윤없이 직접생산자에게서 받아서 판매 함으로써 3-4명의 취직도 되고 하여 우리 한인사회에 2중의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기대가 크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의 명단과 맡은 연구조사분야는 아래와 같다.

Coordinator (위원장겸임)	이선복
Introduction	김형진
Operating Expense Analysis	김재호
Market survey	최경수
인구 및 생활양식조사	남성삼
Draft Review	김실동
General Assistance	이익환

제2차 공동회의

한인회관설치위원회에서 추진해오던 건물 매입건의안을 두고 한동안 현장조사와 운영비 분석을 했던 이사, 임원, 및 회관설치위원들은 지난 1월29일 저녁에 와싱턴 대학의 톨슨홀에서 다시 모여 서두수 이사장의 사회로 제2차 공동회의를 가졌는데 대화준비 있는 3층건물을 살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오래 의논을 했으나 결정을 못지우고 폐회하고 말았다. 논쟁의 초점은 이 건물을 "사느냐 안사느냐"에서 우리가 "살수 있는나"의 법적 해석, "살 능력이 있는나" 등의 이유로 찬반의 발언이 계속되었는데 이 건물을 매입 하라고 지지하는 측의 주장을 보면;

1. 수지면에서 이익을 볼수있어 투자로 간주될수있다
 2. 30~50명을 수용할수있는 홀을 한인회에서 무료로 사용할수 있으며
 3. 한인회관을 새로 지을때 까지 한인회가 일정한 주소와 장소로 가지게 되며 우선 이런 홀을 이용하면 각종 회의는 물론 한인회 일을 보다 많이 처리할수있고 Grant를 받아서 영어교육, 직장알선 등 회관이 없애 못하는 일을 할수있게 된다는것 등이다
- 그런데 이날 회의가 장시간 토론 끝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못보고 헤어졌기 때문에 한인회관의 장래에 관한 결정을 두고 많은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동회의에서는 건물매입안을 토의 하기에 앞서 서두수 이사장의 제의로 한인회에 감사를 두기로 한다고 결정했으며 서두수, 송승래, 김재호 씨분에게 감사로 위촉하도록했다. 위촉된 감사원의 임기는 1년이며 앞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감사의 업무규정을 먼저 만든후에 감사관을 발동할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런데 현 회칙에 의하면 감사의 선출 규정이 없으며 이사회나 공동회의에서 선정한 감사가 총회에 직접선출된 회장단의 업무를 감사할수있는지의 적법성이 문제로 되어있다. 한인회 재무 집행진은 이문제에 언급 "총회에서 결의된 감사의 업무규정과(회칙개정 포함) 그에 따라 선출된 감사가 아니면 아무도 감사관을 함부로 발동할수 없을것"이라고 했으며 다른 일부인사들도 "규정도 없이 인신부터 해서 감사관을 발동한다면 큰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경고 하면서 임시총회를 곧 소집하여 결정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문제위원회'

수수로 징수결정

이민문제위원회(Immigration Advisory Committee)는 그동안 이민국관계 문제로 곤란을 느끼는 교포들이 의회하는 경우 이를 무료로 도와주고 왔던 일이 많아짐에 따라 이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의회한 교포로 부터 받기로 결정 이사회에 그 승인을 요청하였던바 지난 2월3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는 시간당 5불씩을 의회인으로 부터 받기로 결정하였다.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담당위원이 의회인으로 하여금 수수료를 한인회재무장으로 보내도록하면 재무는 접수한 전액을 그 담당위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수수료 징수결정의에도 (2)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한인회회장은 자동위원이 된다. (3) 이민문제위원회 업무규정을 이 현기이사로 하여금 기간하여 다음 이사회에 상정토록한다 등을 결의했다. 그런데 이민문제위원회는 작년 10월 당시 회장이 한만섭씨에 의해서 발족을 본 한인회의 한 분과위원회로서 현재는 이 사회의 관리를 받고있으며 위원은 이현기(이사), 유재건(학생), Eddie Yoon(법조계), Paul Shin 및 한인회장 등 5명이고 임시사무소를 신호법위원장 사무실(전화 546-4753)에 두고있다

삼일절기념 행사안내

금년도 3·1절 기념행사를 학생회와 한인회 공동주최로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때: 1974년 3월 1일 (금요일)
지역 8시
곳: 와싱턴대학 학생회관 209A 호실
순서: 1부 기념식
2부 음악회

1974년 2월 15일

학생회장 최재원
한인회장 구범회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단상

한인교포사회가 날로 성장함에 따라 한인들이 모이는 기회마다 "우리 한인회는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해야지" 하며 한마디씩 한다. 그러면 "당신이 그일에 선두에 나서서 하세요" 하면 "나야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대답을 듣기가 일수이다. 하기가 우리가 사는 이 미국사회는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된 나라이고, 자기가 사는 사회서 무엇을 배워서 자기에게 보탬이 되나 하는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나라이기에 한인교포사회도 예외는 필수이다. 1967년 한인회가 탄생한 이래로 한인회에서는 각종행사를 많이 주최했다. 교포들의 반응은 그 행사가 자기에게 Enjoyable 한것이면 참석하고 Unenjoyable 하면 안나온다. 다시말해서 한인회에서 배낼수 있는것은 다 배워서 자기보탬은 한다.

이것은 미국사회서 사는 한 가장 당연한 논리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어느 사회나 단체라도 넣는것 (Input)과 빼내는것 (Output)이 균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한인회 (=한인사회) 를 위한 보탬 (Input) 이 되나 하는것을 생각해 보자.

● 한인회 임원직은 Volunteer Job이다. 이것은 자기의 시간과 돈을 남을 위해 바치는 고승한 사업이다. 지성인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포회원들은 적극 임원직에 참석해야 할것이고 한자를 떠나 아가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교포사회사업에 긍정적으로 참여해야 할것이다.

● 일반회원으로서도 한인회 사업에 도움이 되는일은 많다. 금년도 임원회는 차례없이 많은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회장이 회장직 당선이후 그가 달리는 자동차거리를 그의 담부량으로 추산해보면 평상시의 2배 이상됨에 틀림없다(지난 일년간 내가 달린 차 거리는 그전년도에 비해 30%나 증가했다. 물론 이 30%는 전부 한인회 사업에 썼다는것이 아니지만). 회장직은 수많은 회의 참석 (대비·대외) 를 요구한다.

Tacoma 지역 또는 Olympia 까지 달려야 한다. 때로는 회장말고라도 한인이 참석함으로써 한인사회에 보탬이 되는 때가 많다. 일반회원들중 이런회의 참석에 협력하여 Gas난인 이 시국에 한인회 임원들의 짐을 덜어줄수 있을것이다.

● 이전 회보를 며칠 정기적으로 발행키로 되었다. 이번 회보를 받아본 사람으로 "그 참 팔렸구나" 하지 않을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버기까지 시간과 수고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것이다. 일반회원들중에서 회보 발행에 원고투고로 또는 편집 원고정리 등으로 협력할것은 많은 것이다.

●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그것이 Enjoyable 하면 아니던 많이 참석하는것이 요망된다. 더욱 지성인으로 자부하고 사명감을 느끼는 회원은 Unenjoyable한 행사수족 더욱 참석하여 한인사회사업을

도울수 있을것이다.
● 한인회 탄생후 한인부인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한인회 사업의 저력이 되어왔다. 부인들의 이와같은 봉사는 계속 요망되는것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 임원직에 참여해야 할것이다. 특히 임원들의 부인들은 남편들이 고승한 사회사업을 한다는 긍지를 간직하고 남편 사업에 협력 해주기 바란다.
마지막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저 TV Football Commercial에 나오는 "Volunteer" Program 이 호소하는 말 "What we need money can't buy, we need you" 이다. 한인회는 돈으로 살수없는 당신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

정회원 제1번에 장락종씨 부부

금년도 한인회비를 제일먼저 내신분은 장락종씨로서 정회원 제1번이 되었다. 그외에 회비를 내신분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아직 회비를 안내신분은 조속한 시일안에 재무에게 보내주길 바라고 있다.

1974 Membership Dues Paid In Order of Arrival of payments:

- 1. 장 락 종 #10.00
- 2. 이 현 기 10.00
- 3. Paull H. Shim 10.00
- 4. 전 계 상 10.00
- 5. Dan T. Lee 20.00
- 6. 김 현 중 10.00
- 7. 이 정 숙 10.00
- 8. 정 명 근 10.00
- 9. 김 현 길 10.00
- 10. 박 옥 길 5.00
- 11. 남 성 삼 10.00
- 12. 김 흥 식 10.00
- 13. 박 키 판 10.00
- 14. 조 광 석 10.00
- 15. Henry & Chungsook Sorrell 15.00
- 16. Louis S. Shim 10.00
- 17. 구 범 회 10.00

* 1973년도 회비를 냈으나 11월 총회에서 발표안된 분들: 곽종세 (5.00) 안병영 (10.00), 이순모 (10.00) 윤삼원 (10.00), 이상

원고 모집

본 한인회보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논문을 비롯하여 교포 제안, 정부에의 제안, 미국에서의 생활 경험 등 교포사회에 유익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을 보내실때나 사전에 연락할 일이 있을때는 편집을 책임맡은 이석복씨에게로 해주십시오.

Mr. Suk Bok Lee, Editor
1612 N.E. Ravenna Blvd.
Seattle, WA. 98105
Tel. 522-9904

한인회 사무소 설치에 회원들의 협조요망

가까운 장래에 개설하게 될 한인회사무소가구와 비용이 많이 필요하며 회원중에서 일부를 기증해 주길 바라고 있다. 당장에 필요한것이 책상, 의자 및 테이블, 영문 및 한글타자기, File Cabinet 회의용 Folding chair 및 Table, Safe, 등인데 새것 한것 상관없이 받고있으니 기증하실분은 한인회임원에게 연락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한인회 총무실에서 알리는 말씀

한인회에서는 경험이 있고 보수있어(단교통비는 지불할수 있음)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해주실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도와줄수 있는분은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총무 이순모 (전화 485-4415)나 회장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1) 한글타자기를 쳐본 경험이 있는분
- 2) 영문 Typist - 한인회주소록, 회칙, 업무규정, 대외편지 공문 등.
- 3) 서기 - 한인회의 각종회의에 나와서 회의록 작성등.
- 4) 기타일 - 일손이 필요할때 나와서 도와줄수 있는 분.

오는사람 가는사람

배수완씨(음파가): Alaska 를 떠나 Seattle로 이사를 와서 약관을침 하여 Arirang Tavern 에서 출연중.
김창성씨(Kim's Travel 사장): 한국을 다녀온후 새집을 사서 이사했음 주소는 5205 230th St. S.W. Mtlake Terr.
박우산씨(U.W. 화공과 Ph.D.): San Diego 에있는 General Atomic Co. (Gulf와 Royal Dutch Shell의 합작) 에 취직이 되어 2월25일경에 Seattle로 떠날예정

"편집자코너"

한인회의 動靜을 살같이 권회원에게 알릴려고 하는것이 이 월간 한인회보의 발행목적이고 보면 편집자로서 과연 그 사명들 다 할수가 있을지 항상 염려된다. 첫호를 정월이 다가기 전에 벌려고 서둘러 보니 실수가 많았다. 있고 빠트린것, 교정을 철저히 못본점, 등. 바쁘신가운데 훌륭한 글을 써주신 여러분과 편집상에 필요한 충고를 해주신 여러 회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첫호를 받아보고 칭찬과 격려의 편지를 보내준 분이 많았는데 편집자에게는 인삼녹음보다 더좋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로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훌륭한 회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친히 북돋위로 "한인회보"란 제호를 써 주신 이창희 선생님과 많은 시간과 정을 드려 회보를 그토록 산뜻하게 인쇄를 해주신 Pro Litho 의 김길량 사장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투고" 고아보다 더불쌍한 이 1200 명 이 한회

우리들의 피눈물을 짜내던 6.25 전란은 이미 지나갔다. 우리는 美軍의 도움을 받았고 한편으로 감사하는바이다. 그러나 남의 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방자하게 횡행한 결과 참아 볼수 없는것이다. 혈기왕성한 젊은 군인이 한국에 와서 독신생활하는동안, 또는 감으로 한국 여자와 연애를 하여 자녀를 낳고 그 책임을 지고, 그 여자와 그 소생을 美國으로 내려다가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더러는 그 과반대로, 일시적 불라는 성욕에 몰려 女孑를 유인하거나 혹은 강제로 재성욕을 방사시키고는 그 女孑를 모른채 하여 자기 종적까지 감추어 버린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세상에 라이산 混血兒들은, 그 집안에서 천동이, 동네에서 돌림병이, 학교에를 가기 시작했다가도 주위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퇴학할수밖에 없게 되어, 어떤곳에 일을 얻어 갔다가도 바리고 도나올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혼란, 허무, 絶望을 겪으면서도 이들은 자라났다. 그 數가 1200 餘명이라고 한다. 그중에는 從軍할 나이가 된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며, 더러는 자진해서 종군하겠다는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絶望! 軍部에서도 이들을 거절할수밖에 없다고 한다. 50% 外國외국인들을 어떻게 잘대 신뢰하느냐도 문제이고, 또 이들은 類달기생였으므로, 敵의 좋은 利用物로 포로되기 쉽다는것이다. 미국키 어느 孤兒養院단체가 이들을 불쌍히 여겨, 미국으로 데려온운동을 해본일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벌써 지나치게 자란 까닭으로 이들을 맡아다 기르려는 집이 없다는것이다. 아, 고아보다도 더 불쌍한 이 混血兒들이여! 이들의 心理의 動向은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들을 다만 불쌍한것들로만 볼것이 아니다 수명이 남는 國類集合이던 社會의 勢力이 된다. 이월 말에는 두길에 있다. 하나는 無神論의, 질주적, 파괴적인 공산주의의 길이고; 하나는 有神論의

相愛的인 그리스도의 길이다. 이들이 왜, 아직까지 공산화되지 않았나 공산주의자들이 왜, 애대, 그들을 유인치 못했나? 여기에서 나는 초님의 구원의 손이 움지기고 있음을 믿는다.

김혜성목사가 지난 가을 이후로 이혼할아 문제를 신중히 연구하며, 이에 대하여 설교하시는것도 들었다. 나도, 이 문제는 과두신자들이 반듯이 해결해야 할것으로 생각은 했으나, 나 같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이 일에 임무를 볼수 없어서 입다문고 있을뿐이었다. 몇주일전에는, 내가 하도 궁금해서 김목사에게, 그 혼혈아 문제가 어떻게 진전되어감니까 물은즉, 김목사는 기뻐 웃으며, "네, 잘 돼갑니다, 저 自身도 한동안은 束手無策이 있는데, 뜻 밖에, 이렇게까지 好轉되고, 이렇게 순조롭게 진전되는것은 참 하수님의 섭리인줄로 믿습니다." 하여 다음과같은 이야기를 하셨다: 어떤 친구를 통해서 Multi-Millionair 미국 富翁 한분을 만나게 되어, 한국의 혼혈아 문제의 自初至終을 이야기하였더니,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은, 慈悲이랄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일이라고 하면서, 善後策을 討議해 보자고으므로; 이 아이들의 職場, 居處, 基本敎育, 職場永久保存 問題, 利用或은 搾取 當限을 防止키 爲한 最低賃金 確定까지 討議 議, 渡美旅費 問題까지 解決 되었고, 이제 남은것은 韓美兩國間의 旅券, 比價, 勞働 序의 許可 等의 問題인데, 韓國側에서는 反對 할 理由가 전혀 없고, 美國側 當局과 交涉이 大體로 다 되었으니, 이제 무려는 빨리 筋次를 밟는것뿐이다. 우선 第一着으로 한 一百二十名 쯤 먼저 三月 (March) 中에 美國에 옮겨 놓아야 되겠으니가 다음일 다 처차 놓고라도 二月初에는 한국에 나가서 혼혈아 제일차 명단 120을 分明히 작성해 놓고, 한국정부 측에 手續를 完畢하고 도와와서, 이곳에서 할 善後部次를 밟아야 되겠다고 決言하였다.

그후 김목사는 본주히 서둘러서 이것을 성취코져 二月五日에 한국에 가셨으니 일의 시작은 이미 되었다. 아무쪼록 碍路가 생기지 않고 이 일이 圓滿히 성공되기를 祈禱 하여 마지 않는다.

회비납부요망

한인회 재무부에서는 와싱턴주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회비를 납부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회비는 부부 10불이며 (단 18세 이상인 독신자는 5불) 아래 양식에 주소 성명 및 금액을 명기하여 회보에 첨부된 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회비를 보낼때는 수표나 "머니오더" 를 이용하고 현금은 필드로 동봉하지말도록 부탁드린다고. 회비를 내신분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달 발행될 회보에 그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있도록 되어있다.

한인회 재무 김형진 귀하
TO: J. H. Kim, Treasurer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1974년도 회비 \$10.00 (독신자는 \$5.00) 과 한인회 운영을 위한 한조금 # _____, 도합 \$ _____ 을 동봉하였습니다.

성명(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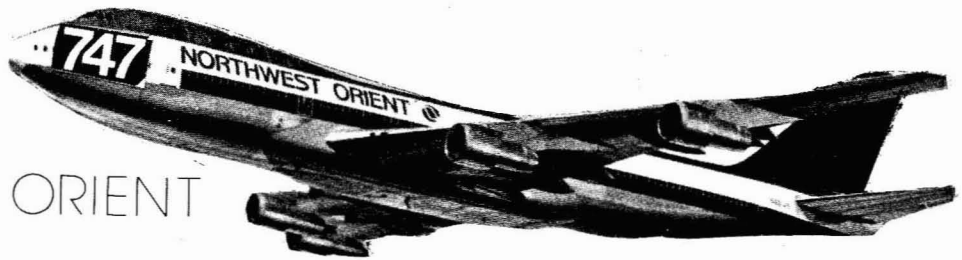
Yes, I want to advertise my bussiness

Wash. Korean News Directory
 Payment enclosed Bill me
 \$75.00 Prime page
 \$50.00 Full page
 \$40.00 3/4 page
 \$30.00 1/2 page
 \$25.00 1/4 page
 Design supplied Design wanted

Contact Pro-Litho if special design need
119 Yale ave. N. Seattle 622-7371
Gil R. Kim

Bus. _____
Name _____
Address _____
Tel. _____ Date _____
Signature _____

NORTHWEST ORIENT



국내외 항공료 염가제공
정기 염가 모국 방문
이민 항공료 및 집 알선

김의여행사

603 STEWART STREET ROOM 606 LLOYD BUILDING

Phone: (206) 624-2227 (206) 624-2228

대표: 김 창 성 RES. 776-7115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

16520 Linden Avenue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919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